

# 북한 민족주의론의 분화와 진동 (1980-1997):

## 이중 통치의 부상과 정치적 계승을 중심으로

강혜석\*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IV. 김일성민족과 '주체성과 민족성'론,<br>그리고 8.4노작 |
| II. 후계체제와 북한 민족주의                | V. 나가며                               |
| III.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br>우리민족제일주의 |                                      |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1980년부터 1997년까지 북한 민족주의의 변화과정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해당 기간은 북한 민족주의의 실질적 내용과 공식적 위상에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상호 연관된 두 개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다. 첫째는 분화와 변화를 가져온 정치적 동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고적 평가를 넘어선 전망적 분석이 가능하리 믿기 때문이다. 둘째는 북한 민족주의의 성격과 내용 자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동학 속에 변화 발전해온 북한 민족주의가 역으로 북한 정치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는 북한에게 있어 1980년부터 20여 년의 기간이 김일성-김정일 이중 통치 구조 하에 남북 간 세력균형의 역전이라는 새롭고 위협적인 조건을 극복해 나가며 후계자의 업적을 축적하고 능력을 증명해 정치적 계승의 정당성을 구축해 나가야 했던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정치적 구조로 인해 북한 민족주의는 후계의 동학을 중심으로 분화되고 변화되는 양상을 보

\*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중점교수

였다는 것이다.

▪ 주제어: 북한, 민족주의, 정치적 계승, 이중 통치, 정당성

## I. 들어가며

북한 민족주의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sup>1)</sup> 특히 최근 들어 이와 같은 관심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sup>2)</sup>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의 이면에는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북한의 미래와 관련한 핵심 질문들, 즉 북한의 ‘변화’에 대한 공감의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토피아’에서 ‘발전’으로의 비전의 변화가 그것이다.

물론 북한의 변화가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민주화, 다시 말해 체제 전환이나 이행과는 거리가 먼 독재 체제의 내적 변화에 머물러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 체제 비전의 무게중심이 혁명에서 발전으로, 계급해방에서 부국강병으로 변모해 온 것만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sup>3)</sup> 김정일

- 1) 기존의 북한 민족주의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서동만(2000), 서재진(1993), 이종석(1994), 김연각(1993), 김태우(2002), 전미영(2003), 김창근(2003), 도홍렬(2003), 정영철(2001; 2003; 2010), 박영자(2005), 김갑식(2006), 김광운(2011)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문제의식을 달리하면서도 대체로 북한 내부에서 나타난 ‘민족·민족주의’ 개념 정의의 변화와 그 함의를 통시적으로 다루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 2) 최근 3년 이내 북한 민족주의와 관련한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강혜석(2017a; 2017b; 2019a; 2019b), 정영철(2017), 최선경·이우영(2017), 전미영(2018), 조영임·안경모(2019), 이중구(2019), 조원진(2019).
- 3) 이와 같은 사회주의 독재국가들의 체제 내적 변화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번의 계기를 통해 학문적 주목을 받아왔다. 첫 번째의 계기는 1950년대 흐루시초프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며 본격화된 사회주의 내부의 ‘분화’였다. 찰머스 존슨이 편집한 *Change in Communist System*은 그 대표적인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Johnson ed. 1970). 두 번째의 계기는 수많은 희망적인 바람들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살아남은 몇몇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중국의 지속적인 성취와 관련한 의문들을 풀고자 시작된 새로운 비교사회주의의 흐름이었다. 첫 번째 파도의 이론적 성과들은 ‘적응’이라는 개념을 통해 최근의 두 번째 파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교사회주의의 연구성과들에 대한 개괄적 리뷰는 강혜석(2017b, 8-18)을 참조할 것.

시대 이후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등장해온 일련의 모토들, 즉 ‘강성대국론’과 ‘강성국가론’, ‘사회주의 문명강국론’과 ‘전략국가론’ 등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들이라는 것이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이 상기한 북한의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거쳐 ‘김일성민족’론으로 진화해온 북한의 민족주의는 혁명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자신들의 변화를 정당화해온 핵심 기둥으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은 시대의 핵심 모토로 부상한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일련의 민족주의적 담론들이 ‘국가’를 매개로 사회주의적 비전들을 대체해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북한의 미래와 관련하여 북한 민족주의론의 과거와 현재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조망해야 할 이유라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1980년부터 1997년까지의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해당 시기는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방안을 필두로 1986년 우리민족제일주의론, 1994년 김일성민족론, 1997년 주체성과 민족성 담론과 8.4노작의 발표 등이 이어지며 북한 민족주의의 실질적 내용과 공식적 위상에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로서 현재의 북한 민족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고리 중 하나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해당 시기에 이루어진 변화들의 이면에 있는 정치적 맥락을 드러냄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하고자 시도했다. 김정일로의 권력계승이 바로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후계체제와 북한 민족주의

북한 정치에서 1980년부터 1997년의 시기를 관통하며 이데올로기 지형에

4) 북한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되어 왔다. 본고에서도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밝힌다.

5) 이에 대해서는 강혜석(2019b), 전미영(2018), 조영임·안경모(2019)의 연구를 참고할 것.

영향을 미친 변수와 동학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남북 간 힘의 균형의 변화이다. 1970년대를 통과하며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은 남한의 우위로 귀결된다.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1960년대 말 남한이 북한을 추월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하든 혹은 1970년대 중반으로 그 시기를 늦추어보는 이전의 보수적인 견해들에 근거하든, 1980년대가 추세와 현황 모두에 있어서 남한의 우위가 분명해진 시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김석진 2002, 36-37). 또한 이러한 경제력의 격차가 군사비라는 보다 직접적인 힘의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남한은 1970년대를 거치며 군비의 열세를 급격히 상쇄해 1980년에 이르면 누적 군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한을 현격한 차이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함택영 1998, 201-254). 진영과 남북을 경계로 한 치열한 외교전의 결과였던 1981년 9월 서울올림픽 개최 결정은 이처럼 달라진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을 상징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힘의 불균형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거치며 극단적으로 심화되었다.

둘째, 후계의 동학이다. 국가 지도자로서 후계자 김정일이 통치 전면에 나서며 이른바 ‘이중 통치’ 구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정일로의 후계체제는 이미 그가 당 정치위원회 위원이자 후계자로 공식화된 1974년 2월 조선노동당 제5기 8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정창현 2007, 358-359).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의 지도자’로서의 후계체제였다. ‘당중앙’으로 베일에 싸여 있던 그가 대중에 공개됨과 동시에 정(政)과 군(軍)에게까지 당적 지도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적인 정책적 지침을 하달하고 이데올로기의 유일한 해석권자로서 자리매김하며 ‘국가의 지도자’로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였다(안경모 2013, 69-74). 황장엽이 1974년 이래 후계체제의 전 기간을 김일성·김정일 ‘이중(二重)정권 시대’로 규정하면서도 대략 1985년을 기점으로 이전의 김일성·김정일 이중정권 시대와 구분되는 김정일·김일성 이중정권 시대로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변화가 반영된 평가라 할 수 있다(황장엽 2001, 89). 특히 이중권력의 구조 하에서 홀로서기는 유훈통치로 상징되듯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도 상당 기간 정치적 ‘과정’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게 있어 1980년부터 20여 년의 기간은 일종의 이중권력

구조 아래 남북 간 세력균형의 역전이라는 새롭고 위협적인 조건을 극복해 나가며 후계자의 업적을 축적하고 능력을 증명해 정치적 계승의 정당성을 구축해나가야 했던 시기였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정치적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 민족주의의 구체적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종의 듀얼리즘(dualism)이다. 비록 김정일로의 북한식 후계체제가 여타의 전형적인 정치적 계승들과 달리 전임자에 대한 부정(negation)과 혁신이 아닌 인정(recognition)과 지속의 논리 속에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김일성의 지향과 필요가 김정일의 그것과 동일할 수는 없었다. 민족해방투쟁의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김일성에게 ‘통일’은 말 그대로의 지상과제이자 일생의 목표였던 반면 북한의 정치가로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김정일에게는 ‘강한 북한’이 보다 중요한 지향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우 밀접히 연동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상기한 두 개의 지향은 단기적·현상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민족론이 병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논리적으로는 그러한 두 개의 지향을 하나로 종합해야 하는 과제를 북한에게 안겨줬던 것으로 보인다.<sup>6)</sup> 1980년 이후 북한의 민족주의 담론이 김일성이 주도한 조선민족론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흐름과 김정일이 주도한 김일성민족론과 우리민족제일주의의 흐름이 교차하고 병존하는 단계를 거쳐 1997년 ‘주체성과 민족성’론과 “8.4노작”을 통해 통합을 시도하는 양상을 보인 이유이다.

둘째, 후계자의 이해와 지향 속에서의 민족주의의 변형과 발전이다. 레닌과 스탈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그리고 최근의 시진핑에 이르는 많은 사례에서 잘 나타나듯, 다원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민주정치체제가 아닌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에 기반한 계급독재 구조를 지닌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영도의 정점이 갖는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최고의 특권은 이데올로기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해석권자로서의 지위라 할 수 있다. 1966년부터 3년 2개월여 동안 진행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집중적 총화와 1974년 김일

---

6) 북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민족론 자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강혜석(2019a)을 참조할 것.

성주의 선포를 통해 막을 올린 김정일로의 후계체제는 이와 같은 공식이 매우 전형적으로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다(강혜석 2017a, 76-77). 특히 1980년대는 1982년 발표된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1985년에 완간된 『주체사상총서』에서 보듯 김일성 시대의 사상적 성과를 일단락 짓는 동시에 김정일 본인의 독자적인 비전과 통치원리를 확립해 나간 시기라는 점에서 일종의 전환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980년대 북한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는 바로 이와 같은 후계체제의 동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사상적 맹아들과 조직적 원칙들을 밝힌 핵심 논문으로 1986년에 발표된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을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이해와 필요 속에 김정일은 크게 두 가지의 과제를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설계하고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강혜석 2017a).

먼저 ‘우리’ 만들기이다. 정치의 본질이 ‘적과 동지의 구분(friend-enemy distinction)’이라는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통찰에서 보듯 ‘타자’와 구분되는 ‘우리’를 규정하는 작업은 지배와 복종, 그리고 그 속에서의 권력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다(Schmitt 2007, 29; 35; 52). 이러한 우리 만들기는 크게 두 가지의 작업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 우리에게 대한 명백한 규정을 통해 타자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통합의 기제들을 통해 우리 내의 이질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우리민족제일주의’와 ‘김일성민족론’이 첫 번째의 작업이었다면 그와 동시에 진행된 ‘군중노선(mass line)’의 강화와 ‘광폭정치’, ‘인덕정치’론은 두 번째의 작업이었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지배의 정당성의 기반으로서의 ‘우리’를 ‘타자’와 구분되는 분명한 실체이자 단일한 정체성으로 확립하고자 시도했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구성된 ‘우리’를 자신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조직원리 안에 단단히 결속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권력의 기반이지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정권을 ‘향한’ 칼이 될 수도, 정권을 ‘위한’ 칼이 될 수도 있는 민족주의의 이중적 속성에서 볼 수 있듯이 통제되지 않는 ‘우리’는 역으로 권력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Morgenthau

1957, 481-482). 민족주의의 호명이 항상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비롯한 김정일의 핵심적인 조직원칙들과 함께 제시된 이유라 하겠다.

이와 같은 논점들을 중심으로 이하에서는 1980년 이래 1997년 김정일 정권의 출범까지 북한 민족주의의 구체적 변화 양상을 크게 2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시기는 1980년 6차 당대회를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제시된 이래 1986년 우리민족제일주의가 등장하기까지의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김정일의 주도 하에 우리민족제일주의가 지속 강화되고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응들이 진행되는 동시에 김일성민족론을 거쳐 ‘주체성과 민족성’론과 “8.4노작”으로 북한의 민족담론이 종합되어 나타난 시기이다.

### Ⅲ.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우리민족제일주의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마르크스(Karl 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의 선언이 상징하듯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가장 반(反)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평가되어 왔다(Marx & Engels 1872, 72).<sup>7)</sup>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출범한 북한 정권의 입장 역시 이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반론을 따랐다. 민족해방운동에 뿌리를 둔 김일성과 만주파 등 북한 정권의 통치 엘리트들이 지닌 강력한 민족주의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민족주의가 스탈린(Joseph Stalin)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소멸되어야 할 ‘전염병’이자 ‘반동사상’으로 묘사되어 온 것은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7)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도그마와는 달리 실제의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예외 없이’ 민족주의와의 융합을 경험했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구호와 모순된 병행이 지속된 ‘일국사회주의’나 ‘소비에트 애국주의’ 개념은 그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박호성 1989, 9).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론’의 차원에서 양자가 오랫동안 화해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민족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평으로는 박호성(1987; 1989), 임지현(1999) 등을 참조할 것.

적 긴장이 만만치 않은 것이었음을 보여준다(Stalin 1989, 316; 324;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1980년대는 세력균형의 변화와 이중 통치의 부상이라는 조건 속에 이와 같은 ‘민족 대(對) 계급’이라는 기존 구도에 ‘통일 대(對) 국가’의 구도가 중첩되며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된 시기였다는 점에서 북한 민족주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1980년 6차 당대회를 통해 본격화된 이후 1986년 우리민족제일주의의 등장으로 일단락된 북한 민족주의론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1. 6차 당대회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80년 6차 당대회는 1970년 5차 당대회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 등을 통한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 단계를 넘어 공산주의 건설까지 지속되는 계속혁명의 과제로 규정된 사상, 기술, 문화 3대 혁명의 성과를 총화하는 자리이자 1974년 후계체제의 수립 이후 최초의 당대회로서 북한 정치사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대회였다(김일성 1980/10/10, 316-338).<sup>8)</sup> 이와 같은 6차 당대회의 의의는 북한의 대남, 통일 정책과 민족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그리고 관련한 김중린의 발언이었다.

‘1민족·1국가, 2제도·2정부’의 원칙과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중립화를 핵심으로 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가장 큰 의미는 북한의 통일방안이 최초의 체계화된 형태로, 그것도 최고지도자의 직접 육성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었다.<sup>9)</sup>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민족대단결론을 재확인한 김일성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김중린의 발언이라 할 수 있다(김일성 1980/10/10, 372-373). 각 지역을 대표하는 토론자 중 한 명이었던 김중린은 1969년 후계체제와 맞물려 있었던 허봉학 등 대남 라인 숙청 후

8) 본문에 밝힌 북한 원전 출처의 연월일은 출판일이 아닌 해당저작의 실제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9) 이와 같은 평가와 그에 대한 남한 당국의 구체적인 대응 등에 대해서는 정세현(2013, 40-46)을 참조할 것.



그 후임으로 대남 담당 비서에 등극한 이래 1980년 당시를 포함하여 북한 역사상 가장 긴 총 13년간 대남 담당 비서를 역임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발언의 결코 의미가 작지 않았다.<sup>10)</sup>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하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는 동 대회에서의 김일성의 발언과 함께 일종의 ‘통일지상주의’로 해석되어온 그의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았다(김일성 1980/10/10, 369, 372-373).

주체사상은 사람은 민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나가는 사회적존재로서 그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도 민족국가를 단위로 진행되는 만큼 민족의 자주성을 쟁취하고 고수하는 문제가 매개 나라 혁명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독창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의 해결은 계급해방이나 인간해방문제의 해결에 앞서야 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민족이 있고서야 혁명과 건설도 있을 수 있고 사상과 리념도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을 떠나서는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그 어떤 사상과 리념을 신봉하든지 간에 무엇보다 먼저 민족을 찾아야 하며 나라의 자주성을 지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대회에서 내놓으신 통일방안은 바로 민족문제에 관한 우리 당의 이러한 근본립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김중린 1980, 322).

물론 김일성이 1969년 12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세계혁명이 승리하려면 하직 멀었으며 민족국가를 단위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조건’이라 평가한 이래, 동 조건 속에 ‘민족문화의 좋은 전통을 옹기 살려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김일성 1969/12/05)이라거나,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김일성 1973/02/28)하다거나, ‘나라마다 처하여 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르며 혁명임무도 같지 않다’(김일성 1977/09/05)는 등 민족 담론에 변화를 보인

10)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heme/viewPeople.do>. (2019년 12월 30일 검색)

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혁명의 ‘조건’과 ‘수단’이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을 뿐 ‘계급과 혁명 대(對) 민족과 통일’이라는 구도 속에서의 우선순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sup>11)</sup>

따라서 6차 당대회에서의 김일성의 발언과 이를 부연하고 구체화한 김중린의 발언은 계급과 혁명보다 민족과 통일을 우선하는 통일지상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을 받았다. 이전의 유물 사관과 달리 민족이 자본주의 시대의 역사적 범주가 아니라고 규정한 점과 사상과 이념의 상위 개념으로 민족문제를 설정한 데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 또는 더 이상 사회주의 민족의 민족주의적 담론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는 통일 민족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진행된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의 결과라는 평가 등은 그러한 예라 하겠다(김남식 2004, 52-53; 이종석 1994, 70-71; 김갑식 2006, 158).

그러나 전제조건과 정치적 맥락에서 보듯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한 것을 북한이 계급이나 민족이냐의 문제와 관련한 입장 변화를 보인 기점으로 삼는 것은 무리이다. 먼저 ‘전제조건’과 관련한 부분이다. 한국 전쟁으로 시현된 바 있는 ‘국토완정론’은 1970년대에 이르러 ‘민족대단결론’으로 변화하게 된다. 전자는 상대에 대한 완전한 부정(否定)을 전제로 북한이 남한을 흡수통일하는 민주기지를 전제로 한 개념이었다면, 후자는 1960년 4.19혁명을 기점으로 한 남한 혁명역량에 대한 재평가 속에 새로이 도출된 이론으로서 남한 자체의 역량에 의한 민주화를 통해 새롭게 수립된 정권과 연방의 형태를 거쳐 통일을 이룬다는 남조선 혁명론을 전제로 한 개념이었다.

바로 이러한 민족대단결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그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민주화와 북미평화협정, 미국의 내정간섭 중지 등을 들고 있었으며 특히 남한의 민주화는 핵심조건이었다(김일성

11)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명제는 이후 후계자이자 후일 북한 이데올로기의 유일한 해석권자가 될 김정일에 의해 정식으로 계승되었다. 그것은 그의 대표 노작이라 할 수 있는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였다(김정일 1982/03/31). 그러나 2009년 증보판은 이전 1992년에 출판되었던 『김정일선집』 구버전과 달리 1963년 6월로 그 시기를 소급시키고 있다(김정일 1963/06/12). 이는 북한에서 해당 주장의 시원을 보다 과거로 거슬러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라 보인다.

1980/10/10, 369-371). 예를 들어 1980년 9월 24일 ‘북남총리회담을 위한 북측 실무대표단 성명’을 통해 광주 ‘대살륙만행’을 비롯한 일련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남조선의 ‘군사과소집단과의 대화 불가’를 선언하며 일체 남북 접촉을 중단한 사례나(국토통일원 1985) 남한의 정상회담 요구에 대해 ‘살인의 괴수이며 민족의 백정’의 ‘몸값을 올려보려는 어리석은 광대놀음’으로서 ‘앞을 자리 설자리도 가리지 못하는 무뢰한의 망동’이라 일축한 사례 등은 이러한 논리를 잘 보여준다(『로동신문』 1981/01/20).<sup>12)</sup> 요컨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전의 남조선 혁명론에 근거한 민족대단결론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맥락’과 관련한 부분이다. 정치적 맥락은 다시 남북관계의 차원과 국제정치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앞서 살펴본 남조선 혁명론의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암살과 광주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남한의 동요가 중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국제정치적 차원에서는 베트남전을 기점으로 시작된 미국 패권의 하락과 국제질서의 변동 과정에서 1973년 이후 유엔을 무대로 본격화된 진영 간 외교전과 그 과정에서 부각된 한·미·일의 ‘두 개 조선’ 공세가 그 계기였다. 다시 말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한의 민주화를 친북적인 남한 혁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두 개 조선 음모’로 명명된 분단 고착화의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한 공세적 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sup>13)</sup>

12) 이러한 흐름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도 잘 나타난다. 예컨대 1982년 2월 10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를 소집하자고 주장하면서 ‘남조선의 현정치 정세하에서 우리가 최소한 택할 수 있는 통일협상의 길은 민족적 양심을 지닌 북과 남, 해외의 이름있는 정치인들을 망라하는 연합회의를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 협상기구로서 북과 남, 해외 정치인 연합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한다’며 여전히 남한의 정부당국을 협상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1983년 1월 18일 제11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남한이 제의한 ‘남북한민국 최고책임자 회담’에 대해 북한은 1983년 1월 18일 오후 5시 평양 방송을 통해 「조선노동당」을 비롯한 21개 정당·사회단체의 명의로 연합성명을 발표하고 이 성명 가운데서 이른바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역제의 해온다. 여기서도 북한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의 누구와도 공통된 통일지향과 애국적 입장에 기초하여 대화를 나눌 것”이며 “남조선의 정당/사회 단체들이 미군철수를 주장하여 나선다면 우리는 그들과도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서로 만나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나 회담의 범위를 제한한다.

13) ‘조선인민들의 민족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저

하지만 아무리 ‘통일, 민주, 독립 대(對) 분단, 파쇼, 식민’이라는 구도를 강조하며 통일과 혁명을 일체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할지라도 제한적이거나 혁명의 적들과의 공존을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론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 위험’, 즉 혁명 정권으로서 북한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었다(김일성 1980/10/10, 366).

또한 자신들이 주도하는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증폭시켰다. 레이건-나카소네-전두환으로 이어지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중국과 소련의 개혁개방이라는 국제정치적 차원의 변화와 남한 정치 상황의 상대적 안정화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 등은 앞서 언급한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남북 양자 간의 힘의 균형의 변화와 중첩되며 남한의 우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봉합된 통일과 혁명의 문제에 강력한 원심력을 발생시켰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북한은 ‘통일과 혁명’이 아닌 ‘통일이나 혁명이나’의 문제로 전화된 새로운 조건 속에서 약화된 정치적 정당성을 재건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던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당의 지도자를 넘어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부상을 본격화하던 후계자 김정일이 이 문제의 전면에 나선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축으로 추가적인 몇 가지의 요소를 결합한 전형적인 민족주의적 기획은 바로 이러한 도전에 대한 김정일의 응전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sup>15)</sup>

---

지파탄시키며 남조선 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이 중심과업으로 나서게’ 된 점을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제안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김일성의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김일성 1980/10/10, 365-366).

- 14) 이러한 위험은 김일성 역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987년의 신년사를 대체하여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로 발표된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하여”가 그 증거이다(김일성 1986/12/30). 해당 연설은 1980년대 전반기의 일련의 우경적 흐름들을 비판하는 함의를 지니고 있었고 총리 강성산, 국가계획위원장 홍성남 등의 좌천 등 정책적 보수화의 신호가 되었다(임수호 2007, 122). 그러나 해당 연설에서도 김일성의 민족론은 어디까지나 통일의 틀 내에 있었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그것과 차이가 있었다. 김일성이 단 한번도 김정일이 제기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강력한 통일지향성을 지닌 이와 같은 김일성식의 민족론의 흐름은 1988년 이후의 대남 접근과 그 귀결로서의 1991년 ‘느슨한 연방제’론과 ‘진정한’ 민족주의론으로 이어졌다. 양자의 논리에 대해서는 김일성(1991/01/01; 1991/08/01)을 참조할 것.

첫째, ‘우리’ 만들기이다. 그 한 축이 ‘우리민족제일주의’라는 새로운 담론을 통해 계급과 혁명이라는 기존의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민족담론을 활용하는, 즉 ‘통일’의 프레임이 아니라 ‘국가(나라)’의 프레임에서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는 방식이었다면, 다른 한 축은 이와 같은 경계짓기의 원심력을 완화할 포섭의 원리로서 군중노선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우리민족’을 수령을 정점으로한 철저히 위계화된 조직원리에 단단히 결속시키는 작업이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 2. 우리민족제일주의와 후계자 김정일

우리민족제일주의는 1986년 1월 3일 후계자 김정일의 신년사 성격을 지닌 노작인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를 통해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동년 7월 15일 발표된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다.<sup>16)</sup> 여기서 김정일은 한반도를 아우르는 기존의 ‘조선민족’론과는 상이한 차원에서 ‘우리’로 치환된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시작했다. 민족의 위대성은 영토나 인구수가 아니라 지도사상에 의해 규정되며 자신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기에 위대한 민족이라는 논리였다(김정일 1986/07/15b). 이처럼 기존의 조선민족론과 달리 남한을 배제하는 논리구조를 지닌 이와 같은 ‘우리민족’의 구성원리는 1989

15) 물론 1985년 민족의 정의에서의 혈통의 강조와 경제생활의 탈락, 그리고 1986년 우리민족제일주의의 등장을 1985년을 전후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연관된 ‘북한’의 대응으로 분석한 기존의 주장들 역시 일면타당하다(정영철 2001, 238-241; 이종석 1994, 74-75; 김태우 2002, 278; 최선경·이우영 2017, 8).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제생활이라는 변수의 탈락은 유보적이었고, 혈통 역시 혈연적인 공통성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민족제일주의는 통일보다는 국가를 강조한 배제의 논리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들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으로 포괄되지 않는 ‘김정일’이라는 새로운 ‘화자’, 그리고 조직과 이데올로기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방식’과 관련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1985년의 민족 정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강혜석(2019a, 143-146)을 참조할 것.

16) 해당 노작은 2009년 증보판을 기준으로 총 40쪽에 달하는 지면이 할애되어 서술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일의 핵심 노작인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 버금가는 분량이었다(김정일 1986/01/03; 1986/07/15b).

년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 1989년 12월 28일자 연설인 “조선민족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우리민족제일주의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입니다(김정일 1989/12/28).

요컨대 김정일은 매우 인위적인 정치적 기획을 통해 당과 수령,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제도라는 네 가지 경계로 구성된 새로운 ‘민족건설(nation building)’을 시도했다(강혜석 2017a).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경계짓기를 통한 ‘소속의 정치(belong to politics)’를 핵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구성’은 바로 그 경계를 통해 배제와 통합이라는 충돌하는 압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sup>17)</sup> 위의 네 가지 경계는 남한을 배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내부의 반혁명세력과 동요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지점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더 많은 이들을 동원하고 포섭하고자 했던 김정일이 새로운 민족건설의 작업과 함께 군중노선을 병행하여 강화한 맥락이라 판단된다.

이른바 ‘복잡한 군중’과 관련한 김정일의 일련의 조치들은 그 핵심이었다. ‘복잡한 군중’이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의거하고 있는 계급적지반이며 혁명의 핵심력량인 ‘기본군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른바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을 뜻한다(김일성 1970/11/02, 344). 사회주의 정권으로서 특히 마오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북한은 계급노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끊임없이 군중노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옹기 결합시켜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극소수의 계급적, 반동적 적대분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김일성의 반복적인 강조는 그와 같은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김일성 1970/11/02, 344). 그러나 군중은 혁명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라는 측

17) 소속의 정치를 통해 민족주의가 가진 이와 같은 정치적 속성을 밝힌 연구로는 유발 데이비스(Yuval-Davis 2003)를 참조할 것.

면에서 양자의 결합은 본질적으로 긴장관계를 내포하고 있었다(안경모 2013, 87). 따라서 실제 현실에서 양자를 ‘옹게 결합’하는 문제는 기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택에 가까웠다. 수많은 비판과 다짐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결합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좌우경적 편향’이 주기적으로 반복된 실제 역사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가 남한에 대한 배제논리와는 다른 범주에서 그 반대의 포섭전략, 즉 군중노선의 강화와 병행되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김정일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최초로 제기한 바로 그 논문, 즉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를 통해 자신이 1985년 11월 5일 제기한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방침’을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지난 기간 풀지 못한 문제’를 드디어 해결한 쾌거이자, ‘항일무장투쟁시기 민생단 문서보따리를 불사른 것과 같은 역사적사변’이며 ‘해방 후 토지개혁을 한 것과 같은 하나의 혁명’으로 극찬하고 지속 강화를 지시했다(김정일 1986/01/03).<sup>18)</sup>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포섭과 배제가 결합된 우리의 구성을 충성의 위계에 결속시키는 과정이다. 1986년 민족의 호명이 민족에 대한 이야기와는 일견 무관해 보이는 조직과 이데올로기, 즉 당과 수령,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한 입론이었던 김정일의 두 개의 핵심적인 노작들인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와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고민과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새로 호명된 민족은 조국, 혁명, 당, 그리고 수령과 철저히 결합된 것이어야 했던 것이다(강혜석 2017a, 82-85). 특히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문건은 그 결합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김정일 1986/07/15b).<sup>19)</sup> 그것은 바로 해당

18) 1985년 11월 5일 지침은 김일성의 기념사진촬영과정에서 출신성분 때문에 박사이며 부교수인 한 논설원이 제외된 것을 크게 문제 삼아 김정일이 군중노선을 강화할 것에 대한 지침을 세우고 당조직들은 물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군중강연을 조직하는 등 대대적인 학습 및 선전활동을 지시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경모(2013, 86-88)를 참조할 것.

19) 물론 1월 연설 역시 7월 연설과 마찬가지로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간부대열, 젊은 인재 및 노동계급 출신 인재 등용,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의 배격,

담화를 통해 최초로 제시된 김정일 버전의 조직구성 원리인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의 결합을 통해 나타났다.

김정일은 상기한 노작을 통해 ‘혁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을 들어 ‘민족적임무인 조선혁명을 잘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업으로 상정했다. 이를 통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하는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내면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를 비가역적이고 결정론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바로 그 귀결이었다.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룬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무한하며 이는 유한한 개인의 육체적 생명보다 우월하다는 의미였다. 무엇보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수령=뇌수, 당=조직’의 도식으로 ‘수령-당-대중’을 하나의 유기체이자 공동운명체로서 설정했다. 이로써 ‘우리’의 경계는 보다 선명해졌다.

뚜렷해진 경계는 나아가 ‘혁명적 수령관’을 통해 계급노선과 수령을 포괄하게 되었다. 수령은 뇌수로 상정된 만큼 그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과 동지애’는 당연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항일무장투쟁의 경험과 사회주의조국건설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그러한 정당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여기에 더해 ‘혁명적 수령관’은 집단주의적 헌신과 자발적 복종을 도덕의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이자 ‘정치적 생명의 아버지’로서의 수령은 충성을 넘어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치환되었다. 사회정치적 생명과 그에 대한 집단주의적 헌신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만고의 도덕률과 다시 한번 결합된 것이었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민족’과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포괄하고자 했다.<sup>20)</sup>

입당문제, 당의 통일단결, 수령의 영도문제와 전당적 유일지도, 종파주의·지방주의·가족주의·패배주의의 지양, 복잡한 군중 문제를 포함한 군중노선, 사회주의 조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조국에 대한 헌신, 교양사업 등 일련의 조직, 이데올로기, 영도문제에 거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김정일 1986/01/03).

20)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한 군중노선과 조직원리의 결합이라는 김정일의 민족주의적 기획은 1986년 조국광복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한 기사들에도 잘 나타난다. 특히 1986년 『근로자』 5호 편집국 논설은 여타의 민족주의 관련 주요 저작들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와 조직의 문제로 시작해 민족주의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편집국 1986, 9-10).



## IV. 김일성민족과 ‘주체성과 민족성’론, 그리고 8.4노작

김정일의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된 북한 민족주의론의 변화와 진동은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일성민족’론으로 정리된다. ‘김일성’이라는 수식어에서도 드러나듯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우리민족제일주의론의 논리를 정식화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김일성민족론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보편과 특수이 문제였다. 주지하듯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진리의 독점을 통한 절대적 보편의 논리에 기반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우리식 사회주의’론과의 결합을 통해 김일성민족론으로 정리된 북한의 민족담론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과 조건에 기반 특수성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보편의 비전과 정당성의 기원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대체하고 보완하기에 김일성민족론의 한계는 매우 분명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굳어져 가는 동시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으며 이와 같은 한계가 보다 크게 다가왔음은 물론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왜 살아남았는가?’라는 수세적 질문에 대한 답을 넘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공세적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진화가 필요했다.

둘째, 통일론과의 긴장이었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의 유일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김일성과 만주파는 그 정당성의 핵심적인 기원을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경험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성의 구조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통일을 조선혁명의 완수와 등치시키는 논리로 확장되었다. 북한 지도부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갖는 진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의 정치 구조에 있어 통일의 지향은 피할 수 없는 압력을 발생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유헌 통치를 마지막으로 이중 통치 구조를 넘어 명실공히 당과 국가의 유일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일이 통일론과의 긴장을 발생시켜온 김일성민족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 하겠다.

이하에서는 상기한 논점을 중심으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1986년부터 1997년까지의 시기를 살펴본다. 첫째는 우리민족제일주의가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거치며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결합하여 김일성민족론으로 귀결된 1994년까지의 시기이며, 둘째는 김일성민족론의 두 가지 한계에 대한 대응이 구체화된 1997년을 중심으로 한 시기이다.

### 1. 우리민족제일주의에서 김일성민족론으로

우리민족제일주의는 등장 직후부터 곧바로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유통이 시도되었다. 또한 생산과 마찬가지로 유통 역시 김정일의 주도로 그가 권력 기반을 닦은 선전·선동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시작은 1986년 5월 김정일이 담화를 통해 문학예술 분야 전반에 ‘민족적자존심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 것을 본격적으로 요구하면서부터였다(김정일 1986/05/17). 이후 그는 1년 남짓 지난 후에도 ‘이렇다할 작품이 나온 것이 없다’며 선전선동부를 질책하고 교양사업 확대와 발전을 강조했다(김정일 1987/11/30).<sup>21)</sup> 특히 김정일은 연극예술과 관련한 담화(김정일 1988/04/20),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관련 담화(1988/09/29), 음악예술론(1991/07/17), 미술론(1991/10/16) 등을 통해 우리민족제일주의가 문학예술 분야의 핵심 종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위상과 역할을 또 다른 차원으로 격상시킨 핵심적 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의 위대한 영광이 아닌 전례 없는 위기였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촉발된 탈냉전의 물결이 그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불어닥친 세계사적 구조변동의 파고는 분단을 매개로 한반도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다. 1988년 9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남북한의 달라진 힘의 균형을 보여준 상징이었다. 북한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10년을 맞이하며 대남 접근을 가속화 해나가던 중국은 물론이고 마지막 보루였던 소련과 동독을 포함한 사회주의 형제국들이 대거 참가한

21)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민족적형식에 인류사상발전의 최고봉을 이루는 주체사상을 담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김정일 1987/11/30).

서울올림픽의 유례 없는 성취는 북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sup>22)</sup> 서울올림픽에 대항하여 이듬해인 1989년 7월 개최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의 ‘가시적 성공’은 역설적으로 추락하는 북한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비추어졌다. 실제 1989년 해당 행사의 종료와 함께 북한의 추락과 고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GDP의 30-60%를 퍼부어 치러낸 행사의 여파는 당장 배급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함택영 1998, 326).<sup>23)</sup> 그리고 10월 헝가리를 필두로 11월 동독과 체코, 12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 약속이나 한 듯 행사 종료와 함께 급격히 무너져간 사회주의 형제국들로부터의 비보(悲報)는 김일성의 각별한 동지였던 루마니아의 지도자 차우세스쿠의 총살 장면과 함께 정점을 찍었다. 사회주의의 전초기지를 자처하며 세계혁명과 민족해방을 부르짖던 북한 정권에게 그야말로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 번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높이 발양’시킬 것을 강조한 것은 바로 1989년 12월 25일 차우세스쿠 처형 3일 후인 동년 12월 28일이었다. 우리민족제일주의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건 중 하나인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가 바로 그것이다(김정일 1989/12/28).<sup>24)</sup> 우리민족제일주의는 말 그대로 위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의 ‘핵심’이었다.<sup>25)</sup> 이는 당연하게도 상기한 ‘시기’의 측면뿐

22) 사회주의 중주국 소련의 참가 저지는 서울올림픽 개최 결정으로 이미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은 북한이 마지노선으로 삼은 목표였다. 다급한 북한은 1986년 10월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직접 방문하여 고르바초프에게 불참을 부탁하기까지 했으나 고르바초프는 긴장완화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으로 북한을 당혹스럽게 했다. 결국 소련의 개혁개방 노선이 강화되면서 1988년 1월 올림픽을 겨우 8개월 남긴 상황에서 소련의 참가가 전격 발표되며 서울올림픽을 둘러싼 외교전은 북한의 참패로 끝나게 되었다(『뉴시스』 2019/03/31; 『경향신문』 1988/09/05).

23) 수많은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전 이미 1990년부터 본격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해당 증언들에 대해서는 안경모(2013, 80)를 참조할 것.

24)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25-30여 명의 간부들과 함께 이 처형 장면을 시청하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KBSI 2011/03/04(안경모 2013, 80 재인용)].

25) 실제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도 우리민족제일주의가 체제 방어적인 기능을 수행했고, 사회주의 붕괴를 직면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의 논리를 담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정영철 2001, 245; 2003, 1677; 박영자 2005, 96-98; 서동만 2000, 182-183; 김창근 2003, 49).

만이 아니라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주의 몰락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종합한 핵심 문건으로 인용되어온 김정일의 1991년 5월 5일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나 1992년 1월 3일 담화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의 ‘중자’들이 해당 논문에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아래와 같이 ‘우리’를 매개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하는, 다시 말해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결합하는 논리였다.

우리 식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지게 하는 사회적기초이며 그것을 더욱 빛내여 나가자는 것이 바로 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발양시키는 목적입니다. [...]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일반론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하고 공고발전시켜 왔으며 그 특성과 우월성이 어디에 있고 우리 식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해설해 주어야 합니다(김정일 1989/12/28).

요컨대 김정일은 전적으로 ‘특수’의 논리에 기반한 ‘우리민족’의 네 가지 경계, 즉 위대한 수령, 당, 주체사상, 사회주의제도를 통해 몰락한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우리식 사회주의의 독창성과 위대성을 선전함으로써 탈냉전의 파고를 견디려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흐름은 ‘우리’라는 보통명사를 ‘김일성’이라는 고유명사로 대체함으로써 절정을 이룬다. 수령의 사망과 함께 제시된 ‘김일성민족’론이 바로 그것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100일째 되던 날 해외동포의 입을 빌려 ‘김일성민족’의 개념을 최초로 언급했다(1994/10/16).<sup>26)</sup> 해당 문건에 등장한 ‘우리민족’의 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국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라는 표현은 김일성의 역사를 북한의 역사, 그리고 북한 민족의 역사로 치환하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994년의 마지막 날 유일한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사실상 최초의 신년사를 내보내며 김정일은 비로소 아래와 같이 ‘김

26) 해당 논문에서 ‘화자’는 “해외 동포”로 제한된다(김정일 1994/10/16). 이는 1970년대 김일성주의가 최초로 선포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완충 장치로 보인다.

일성민족'을 정식으로 호명했다.

내 나라는 김일성민족이 사는 주체조선을 의미하고 내 조국은 사회주의 조국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축하서한에 내 나라, 내 조국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김정일 1994/12/31).

새해 첫날이었던 이튿날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해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서한을 전체 인민들에게 보냈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과 우리민족'은 각각 '김일성조국, 김일성민족'임을 역설했다(김정일 1995/01/01a).<sup>27)</sup> 또한 같은 날 조선 인민군의 지휘성원들에게 행한 또 다른 담화에서도 '현시기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군들과 군인들'이 '김일성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김정일 1995/01/01b).

한편 우리민족제일주의의 또 다른 구성요소였던 군중노선 및 조직논리와 결합 역시 김일성민족론에도 지속되었다. '광폭정치', '인덕정치론'이 그것이다. 물론 이는 갑작스런 현상이라기 보다는 지속적인 강조의 결과에 가까웠다. 예를 들어 김정일은 앞서 1989년에 발표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를 통해 아래와 같이 군중노선을 재차 강조한 바 있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령, 당,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서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과의 대결에서 승패는 누가 군중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27) 주지하듯 김정일 정권의 신년사는 '신년공동사설'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1995년 첫날은 신년공동사설과는 별도로 두 개의 김정일 담화가 노작의 형태로 『김정일선집』에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는 2012년 증보판이 출판되면서 북한 당국에서 추가한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선군정치의 정당화와 역사적 보정작업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사회에서 당은 대중과 떨어져서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민족의 운명도 개척할 수 없습니다(김정일 1989/12/28).

또한 김정일이 우리민족제일주의와 관련한 사상사업을 ‘각계각층의 군중의 특성’에 맞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인텔리, 즉 지식인들에 대한 포섭(inclusion) 작업을 강조하며 이들이 조국과 혁명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상정신적 바탕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거나, 조선노동당의 ‘대중적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이었다(김정일 1990/01/11; 김정일 1990/09/20; 김정일 1990/10/03).<sup>28)</sup>

결국 1986년 우리민족제일주의와 함께 병행·발전되어온 군중노선 강화의 흐름은 후계자에 대한 수령의 유례없는 친필 생일 축하 시가 노동신문 1월 1일자 1면을 장식한 해이자, 김일성의 여든 번째, 김정일의 스물 번째 생일을 맞이한 ‘정주년’인 동시에, 후계자의 주도로 성사된 ‘평양선언’을 통해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려 시도한 해로서 북한의 정치적 계승의 과정에서 매우 특별한 전환점이었던 1992년, 김정일에 의해 ‘광폭정치’, ‘인덕정치’의 이름으로 개념화된다(안경모 2013, 89-93). 그리고 이후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는 김정일의 사실상 취임사로서 1994년 11월에 발표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통해 정권의 핵심 모토로 공식화되었다. 명실공히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연장선으로서, 그리고 우리식 사회주의론과의 결합으로서의 김일성민족론이 김정일시대의 핵심 모토임이 선포되었던 것이다.

## 2. 김정일 시대의 개막과 두 개의 노작

주지하듯 모두의 예상과 달리 김정일 시대의 개막은 ‘유훈통치’라는 전대

28) 물론 노동당의 대중적 정당으로서의 지향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김정일은 해당 이슈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한다고 하여 당에 아무 사람이나 망탕 받아들이고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는데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면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할 수 없고 당이 전투력있는 부대로 될 수 없으며 결국 혁명의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할 수 없게” 된다는 ‘주의’를 병행했다(김정일 1990/10/10).

미문의 개념과 함께 수령에 대한 3년 상을 명분으로 연기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는 김정일의 취임 일성을 무색하게 했던 ‘고난의 행군’과 그 속에서의 정치적 위기였음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1997년은 유훈통치와 3년 상을 마무리하고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공식 취임함으로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김정일 시대의 개막’이 대내외에 선포된 해라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종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론의 종합이었던 김일성민족론을 통한 돌파의 시도는 여전히 위기의 한복판에 머물러 있었다. 새로운 응전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노작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이하 “주체성과 민족성”)와 김정일 최초의 대남 통일전략 관련 문건으로 일명 8.4노작으로 불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이하 “8.4노작”)는 바로 그러한 응전의 핵심적인 내용들, 즉 앞서 언급한 김일성민족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을 담고 있었다(김정일 1997/06/19; 김정일 1997/08/04).

먼저 “주체성과 민족성”의 경우 3년 탈상을 기념한 일종의 특별호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부제가 붙었던 『근로자』 1997년 7호의 권두에 20페이지 걸쳐 실린 논문으로 형식과 분량에 있어서도 매우 특별했다.<sup>29)</sup>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용적인 면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의 가장 큰 의의는 북한에서 ‘민족성’을 호명하고, 그것을 주체성과의 결합을 통해 위상을 높였다는 점이었다. 민족성은 이제 자신들에게 지고의 가치를 지닌 ‘주체성’과 같은 위상으로서 시대를 여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 양자는 적어도 김정일의 논리 하에서는 화학적 결합을 이루었고 이는 곧 국가의 자주성을 담보하는 정신이자 사상적 기초로 호명되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 혁명

29) 해당 호는 김정일의 권두논문 외에도 리을설, 김기남, 양만길, 김용순, 김정숙 등 당시 권력의 핵심인사들이 모두 필진으로 망라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특별했다.

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살리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을 그 자주적본성과 력사적, 현실적 조건에 맞게 수행해나가기 위한 원칙적 요구이다(김정일 1997/06/19, 3-22).

‘민족성’을 격상시킨 이와 같은 김정일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등 보편의 지위를 차지했던 기존의 이론들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중요하다. ‘로동계급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선행리론’이 현시점에 적실하지 않으며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벌려야 하는 당면한 정세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김정일 1997/06/19).

또한 보편적 논리로서의 민족성의 위상은 일국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차원으로도 확장되었다(김정일 1997/06/19). 김정일에 따르면 ‘자주적 본성’은 말 그대로 국가 일반이 가지는 고유하고 태생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이때 국가의 자주성은 인간 개인에 주어진 자주와 마찬가지로 전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진다. 그리고 병렬적으로 제시된 ‘력사적·현실적 조건’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조건을 지칭한다. 따라서 그것은 통시적이면서 특수성을 수반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의 원칙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가의 보편적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민족성 담론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통해 그 위상에 있어서는 북한 체제의 가장 핵심원리인 주체성과 동급으로 격상되는 동시에 그 성격에 있어서는 북한만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되고 있었다.

한편 김일성민족론이 가진 또 하나의 한계, 즉 통일론과의 긴장은 “8.4노작”을 통해 보완이 시도되었다. “8.4노작”은 남북, 통일문제와 관련한 김정일 최초의 저작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조국통일의 3대 헌장임을 선언하며 김일성의 민족대단결론을 계승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해당 저작의 의의는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제목에서 이미 잘 드러나 있었다. 통일이 아닌 국가를 우선하며 일종의 배제의 원리로도 독해될 수 있었던 자신의 민족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여전히 통일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북한의 엘리트와 대중 모두



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보면 스스로에 대한 다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해당 연설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관련한 김정일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 반세기 이상 정권의 핵심적 정당성의 기반으로 통일담론이 갖고 있던 정치적 무게가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 V. 나가며

본 연구는 1980년부터 1997년까지 북한 민족주의의 분화와 변화 양상을 그리려는 시도였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상호 연관된 두 개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다.

첫째는 분화와 변화를 가져온 정치적 동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분석을 넘어 그것에 내재한 변수와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회고적 평가에 머물지 않는 전망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남북 및 국제정치적 세력균형과 후계의 정치에 주목한 이유였다. 둘째는 북한 민족주의의 성격과 내용 자체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동학 속에 변화 발전해온 북한 민족주의가 역으로 북한 정치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북한 민족주의는 2000년대의 민족공조론을 거쳐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나라제일주의 등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다. 민족주의를 기치로 안보와 복지, 혁명과 발전 등 모순되고 충돌하는 가치들을 조정해 나가려는 ‘사회주의’ 북한의 고민과 대응이 이전 시기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은 물론이다.

수많은 장치들을 통해 장시간의 단계적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의 당내 공식 호명을 대중화하기까지 3년의 완충기를 가져야 했던 것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 수는 없다’는 김정일의 과거 언명을 25년이 지난 2011년 들어 굳이 삭제하여 조작한 일들은 북한의 고민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잘 보여준다.<sup>30)</sup> ‘새로운 전략노선’과 ‘새로운 길’의

30) ‘민족주의’를 최초로 공식화한 김정일의 노작으로 2005년 출판된 『김정일저작집』 제15권과 2013년에 출판된 증보판 『김정일저작집』 제14권에 공히 수록된 “민족주

갈림길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향배가 다시 불투명해진 지금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더욱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

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는 2002년 2월 25일과 28일에 나눈 담화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이 당내에 문건의 형태로 공개된 것은 2005년 『근로자』의 마지막 호에 이르러서였다. 또한 김정일의 1986년 노작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해당 구문은 2011년에 발간된 증보판에서 삭제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끊임없이 인민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정당성의 결핍을 메워나간 중국이 수많은 민족주의적 담론들에게도 불구하고 정작 ‘민족주의’는 호명하지 않은 채 애국주의라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 1. 논문 및 단행본

- 강혜석 (2017a). “정당성의 정치와 북한의 민족재건설: 주체, 우리 식, 우리민족제일주의.”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1호, pp. 65-96.
- \_\_\_\_\_ (2017b). “북한 민족주의 연구: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9a). “북한의 민족건설과 두 개의 ‘민족론’: ‘통일론’과의 긴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3집. 1호, pp. 127-155.
- \_\_\_\_\_ (2019b).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과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9권. 3호, pp. 309-345.
- 국토통일원 (1985). 『남북한통일제의자료총람』. 제2권. 국토통일원.
- 김갑식 (2006).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민족공조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45호, pp. 149-177.
- 김광운 (2011). “북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궤적과 환경.” 『한국사연구』. 제152권, pp. 273-306.
- 김남식 (2004). 『21세기 우리민족 이야기』. 통일뉴스.
- 김석진 (2002).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각 (1993).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그 민족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일성 (1969.12.05). “청소년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육 교양의 몇 가지 문제.” [김일성 (1983). 『김일성저작집』. 제2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0.11.02).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 (1972). 『김일성저작집』.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3.02.28).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 [김일성 (1984). 『김일성저작집』. 제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7.09.05).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 (1986). 『김일성저작집』. 제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0.10.10).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 (1987). 『김일성저작집』. 제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6.12.30).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 (1987). 『김일성저작집』. 제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1.01.01). “신년사.” [김일성 (1996). 『김일성저작집』. 제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1.08.01).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김일성 (1996). 『김일성저작집』. 제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63.06.12).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로선을 견결히 옹호하자.” [김정일 (2009). 『김정일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03.31).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2011). 『김정일선집』. 제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6.01.03).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 [김정일 (2011). 『김정일선집』. 제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6.05.17). “혁명적문학예술작품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김정일 (2011). 『김정일선집』. 제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6.07.15a).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1998). 『김정일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6.07.15b).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2011). 『김정일선집』. 제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7.11.30).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 (2011). 『김정일선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8.04.20). “연극예술에 대하여: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 (2011). 『김정일선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8.09.29).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사상 예술적으로 완벽한 최고의 걸작이다.” [김정일 (2011). 『김정일선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9.12.28).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1989년 12월 28일. [김정일 (2012). 『김정일선집』. 제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0.01.11).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 (2012). 『김정일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0.09.20).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김정일 (2012). 『김정일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0.10.03).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김정일 (2012). 『김정일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0.10.10).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김정일 (2012). 『김정일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1.05.05).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 (2012). 『김정일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1.07.17). “음악예술론.” [김정일 (2012). 『김정일선집』 제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1.10.16). “미술론.” 1991년 10월 16일. [김정일 (2012). 『김정일선집』 제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2.01.03.).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 (2012). 『김정일선집』. 제1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10.16).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정일 (2012). 『김정일선집』. 제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11.01).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2012). 『김정일선집』. 제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12.31).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김정일 (2012). 『김정일선집』. 제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5.01.01a).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김정일 (2012). 『김정일선집』. 제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5.01.01b).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총대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자.” [김정일 (2012). 『김정일선집』. 제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7.06.19).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김정일 (2013). 『김정일선집』. 제1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7).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근로자』. 제7호. 평양: 근로자사, pp. 3-22.
- \_\_\_\_\_ (1997.08.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 (2013). 『김정일선집』. 제1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중린 (1980).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에 대한 토론: 자강도당조직대표 토론.”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4권. 국토통일원.
- 김태우 (2002). “북한의 스탈린 민족이론 수용과 이탈 과정.” 『역사와 현실』. 제44권, pp. 256-285.
- 김창근 (2003). “북한 지도부의 민족, 민족주의 담론: 특징과 의미.”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2호, pp. 33-58.
- 도홍렬 (2003). “북한 ‘민족주의’의 사회학적 이해.” 『사회과학연구』. 제20권. 2호, pp. 165-193.
- 박영자 (2005). “북한의 민족주의와 여성: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1호, pp. 83-105.

- 박호성 (1987). “마르크스와 민족주의: 현존 동구공산권에서의 민족이론.” 『역사비평사』, 제9호, pp. 238-270.
- \_\_\_\_\_ (1989).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까치.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서동만 (2000). “북한 체제와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 제4호, pp. 169-190.
- 서재진 (1993). “북한의 민족주의: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pp. 71-96.
- 안경모 (2013).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정치적 계승의 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석 (1994).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그 연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6권, 1호, pp. 65-96.
- 이중구 (2019). “북한의 핵 개발과 조선 식민화 기억의 결합: 핵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 『아시아리뷰』, 제9권, 1호, pp. 231-262.
- 임수호 (2007).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소나무.
- 전미영 (2003).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통일이념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43권, 1호, pp. 185-207.
- \_\_\_\_\_ (2018). “김정은시대 북한 민족주의: 담론, 문화, 정책.” 『북한학보』, 제43집, 1호, pp. 218-249.
- 정영철 (2001).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 pp. 225-265.
- \_\_\_\_\_ (2003). “북한의 민족·민족주의-민족개념의 정립과 민족주의 내용 재평가.” 『문학과 사회』, 제16권, 4호, pp. 1668-1690.
- \_\_\_\_\_ (2010). “북한 민족주의의 이중구조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53호, pp. 1-39.
- \_\_\_\_\_ (2017). “북한의 민족주의와 문화변용: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의 변화.” 『문화정책논총』, 제31권, 2호, pp. 289-305.
- 정세현 (2013). 『정세현의 통일토크』, 서해문집.
- 정창현 (2007). 『김정일: CEO of DPRK』, 중앙 books.
- 조영임·안경모 (2019). “김정은 시대 북한 핵 개발의 국내정치동학.” 『한국과 국제정치』, 제105호, pp. 149-182.
- 조원진 (2019). “북한의 단군민족주의에 대한 검토” 『단군학연구』, 제40호, pp. 183-215.
- 조지프 스탈린 (1989).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칼 마르크스 외.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편집부 편역, 인간사랑.

- 최선경·이우영 (2017). “‘조선민족’ 개념의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1호, pp. 1-24.
-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1991).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김재기 역. 거름, pp. 39-94.
- 편집국 (1986).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민족적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구현하여나가자: 조국광복회창건 50돐에 즈음하여.” 『근로자』. 제5호. 평양: 근로자사, pp. 9-14.
- 함택영 (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박영사.
- 황장엽 (2001).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월간조선사.
- Johnson, Chalmers (1970).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rgenthau, Hans J (1957). “The paradoxes of nationalism.” *Yale Review* Vol. 46. No. 4, pp. 481-496.
- Schmitt, Carl (2007).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uval-Davis, Nira (2003). “Belongings: in between the Indigene and the Diasporic.” Umut Özkırmılı (ed.). *Nationalism and its Futur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2. 기타

- “긴급입수: 김정일, 금지된 과거.” *KBS1*. 2011년 3월 4일.
- “김운용 IOC위원에 듣는다: 88올림픽은 명실상부한 和合(화합)대회.” 『경향신문』. 1988년 9월 5일.
- “[1988 외교문서] 北, 88올림픽 전방위 방해 공작...소련 이용 공동개최 시도.” 『뉴시스』. 2019년 3월 31일.
- “전두환의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로동신문』. 1981년 1월 20일.
-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heme/viewPeople.do>. (2019년 12월 30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0년 02월 10일 |

| 논문심사일 : 2020년 02월 21일 |

| 게재확정일 : 2020년 03월 10일 |

| ABSTRACT |

**The Change and Division of North Korean  
Nationalism(1980-1997):  
Political Succession and Dual Leadership**

**Kang Hye Suk**

(Dep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division and change of North Korean nationalism from 1980 to 1997. During the period, the most dramatic changes were made in the details and official status of North Korean nationalism. This study focused most on comprehensively analysing the two interrelated contexts. The first is to understand the political dynamics that have brought about such differentiation and change. This is why we believe that this will allow us to conduct a predictive analysis beyond retrospective assessment. The second is to specify the nature and content of North Korean nationalism in more detail.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process in which North Korean nationalism, which has changed and developed amid various political dynamics, affects North Korean politics in reverse. The study, in particular, noted that the 20-year period from 1980 was when North Korea had to overcome the new and threatening conditions of a reversal of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wo Koreas under the dual leadership structure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accumulating the achievements of its heir apparent and proving its ability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its political succession. As a result, such a political structure has caused North Korean nationalism to diverge and change around the dynamics of political succession.



북한 민족주의론의 분화와 진동(1980-1997): 이중 통치의 부상과 정치적 계승을 중심으로 83

- Key words: North Korea, Nationalism, Political Succession, Dual Leadership, Legitimacy